# 바로크 선율 만난다 … 그 시대 그 악기로

## ‘무지카글로리피카’ 17일 드맹 아트홀서 무료공연

## 비올라 다 감바·바로크 플루트·첨발로 등 ‘하모니’

1991년 제작된 프랑스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은 전편에 흐르는 잔잔한 클래식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 영화에는 특히 매력적인 고(古)악기가 등장한다. 주인공이 연주하는 비올라 다 감바(viola da gamba)다. 흔히 첼로의 전신이라고 알려진 원전 악기로 생김새는 첼로 같지만 몸통을 바닥에 고정시키는 버팀쇠가 없고, 4현인 첼로와 달리 보통 5~7개의 줄이 있다.

광주에서도 비올라 다 감바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금속으로 만들어진 현대의 플루트와는 달리 나무로 제작된 바로크 플루트, 첨발로(하프시코드), 바로크 바이올린까지도 만날 수 있는 연주회다.

광주 출신 바로크 바이올리니스트 김진씨가 이끄는 바로크 앙상블 ‘무지카글로리피카’가 진행하는 ‘카페 뮤지카’ 두번째 행사 ‘바하로 가는 길 Ⅱ(Rode to Bach Ⅱ)이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드맹 아트홀에서 열린다.

무지카글로리피카는 전문적인 원전연주 앙상블이다. 원전연주(原典演奏)는 그 시대 악기로 그 시대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한다. 김진씨는 1993년 국내에 원전연주를 소개한 이다.

미국에 머물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진씨는 올 봄 담양 리조트 커피숍에서 첨발로 주자와 함께 작은 공연을 가진 적이 있었다. 정식 연주회는 아니었고, 서울 공연을 앞두고 지인들을 위해 드레스 리허설을 오프한 행사였다. 1656년 산(産) 바로크 바이올린과 16~18세기 전성기를 누렸던 첨발로가 들려주는 코렐리와 바흐의 음악은 인상적이었다.

이번 연주회에는 김씨를 비롯해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첨발리스트 김정혜, 바로크 플루트 연주자 스티븐 슐츠, 비올라 다 감바 주자 자쉬 리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

‘무지카글로리피카’ 리더 김진씨.

연주 레퍼토리는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곡들이다. 코렐리의 ‘바이올린과 바소 콘티누오를 위한 소나타’, 텔레만의 ‘파리 콰르텟’, 바흐의 ‘트리오 소나타’ 등이다.

“모던 악기가 스포츠카를 타고 잘 닦인 하이웨이를 달리는 느낌이라면 고악기는 마차를 타고 흙길을 달리는 기분이예요. 돌멩이 하나 하나, 부드러운 흙의 촉감까지 섬세하게 느낄 수 있는 음악입니다. 악기 자체가 섬세하고 인간적인 소리, 자연의 소리에 제일 가까워요.”

지난 인터뷰에서 김진씨는 고악기로 연주하는 원전연주의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춘천에서 열리는 고음악 페스티벌에 참여 후 광주 공연을 갖는 무지카글로피카는 18일에는 서울 이화여대 백주년 기념관에 자리한 카페 버즈 앤벅스에서도 연주회를 진행한다. 광주 공연은 전석 무료다. 티켓 문의 02-6404-356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화 속 바로크 선율

## 광주극장-프랑스문화원 24일 ‘음악으로 통하다’

## ‘세상의 모든 아침’ 상영 … ‘파드되’ 피아노 공연도

광주 프랑스문화원과 광주극장이 함께 여는 ‘음악으로 통(通)하다’는 프랑스 뮤지션의 콘서트와 음악 영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획이다.

오는 24일 오후 5시 열리는 올해 행사는 피아노 듀오 ‘파드되(Pas de deux)’ 공연과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상영으로 구성됐다.

카티나 크리보코첸코와 프랑수와 기시옹으로 구성된 ‘파드되’는 15년전부터 유럽과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연주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룹이다. 특히 비제, 차이코프스키 등 프랑스와 러시아 발레 걸작 음악을 주제로 연주회를 열고 있다.

‘영화를 듣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발레 음악 레퍼토리와 함께 프랑스 영화에 영감을 준 유명 클래식 음악을 영상과 만날 수 있다.

오후 7시부터는 바로크 음악의 진수를 만날 수 있는 음악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사진〉을 상영한다.

첼로 전신인 비올라 다 감바가 등장하는 영화 ‘세상의 모든 아침’.

1991년 제작된 ‘세상의 모든 아침’은 17세기 프랑스를 배경으로 뛰어난 비올라 다 감바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생뜨 콜롱브와 제자 마랭 마레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클래식 음악 팬들에게는 필견(必見)의 작품이다.

제라르 디빠르디유가 주연을 맡았으며 비올라 다 감바의 거장 조르디 사발이 직접 연주하는 주옥같은 음악들이 인상적이다.

티켓 가격 예매 1만5000원. 현매 2만원. 문의 062-224-5858(광주극장), 062-527-2500(프랑스문화원).

/김미은기자 mekim@

# ‘현대미술 견인 60년’ 김종일 개인전

## 31일까지

## 담양 문갤러리

‘순수’

오지호 화백을 필두로 구상회화가 주류를 이루던 1960년대 호남화단에 추상미술의 씨앗이 뿌려졌다. 1964년 현대미술 비구상단체로 창립된 (사)에뽀끄는 이후 광주·전남지역 추상미술의 미술사적 의미를 발굴하고, 그 맥을 이어오면서 서울 ‘오리진’, 부산 ‘혁동인’과 함께 국내 3대 비구상 창작그룹으로 자리매김했다.

그 중심에는 에뽀끄 창립멤버이자 전 이사장으로 지난 60년 동안 광주 현대미술을 견인해온 김종일 전남대 명예교수가 있다. 김 교수가 오는 31일까지 담양 문갤러리에서 회화인생 60년을 되돌아보는 전시회를 연다. 올해는 그가 만든 에뽀끄가 5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김 교수는 검정색 모노톤으로 공간이 갖는 조화와 변주를 추구해오면서 ‘블랙 아티스트(black artist)’라고 불린다. 독특한 질감과 구성미가 돋보이는 작품에 검정색과 대비되는 밝은 색을 과감하게 사용해 풍부한 색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전시에서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미니멀한 조형성이 갖는 무한대의 울림’을 주제로 신작 ‘순수에로의 회귀(Return to innocence)’ 시리즈를 선보인다.

검정색 모노크롬 회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색의 변주로 만들어낸 작품들이다. 아름다운 색의 조화로 미니멀한 조형미를 무한대로 확장하는 작품들은 시각적으로 편안하면서도 화려함을 잃지 않는다.

작가는 화려하고 강렬한 원색 계통의 색채들로 이루어진 작품들 속에서도 작품의 질감과 오브제라는 특수성의 일관성을 잃지 않았다. 절제된 색감과 구도로 캔버스를 장식하는 극도로 단순화된 이미지들에서는 깊이가 느껴진다.

한편 김 교수의 작품들은 미니멀한 조형성을 바탕으로 시대별로 변화해 왔다. 1기로 비유되는 1960년대 ‘초기회화 시대’를 시작으로, 1970년대 ‘흑색시대’, 1980년대 ‘빛과 음양의 조형미 시대’, 1990년대 ‘추상회화와 한국전통의 만남 시대’로 이어진다. 그리고 2000년대 “한계가 없는 자유로움의 세계로 접어들었다”는 작가는 말처럼 깊은 울림을 주는 ‘순수의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홍익대 미술대학과 중앙대 대학원을 졸업한 김 교수는 전남대 예술대학장, (사)에뽀끄 이사장, 광주비엔날레 조직위원 등을 역임했고, 대통령 근정포장을 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홍익대 현대미술관, 포스코, 미국시애틀시청, 타슈켄트 국립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문의 061-381-9881.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양성식 바이올린 독주회 9일 금호아트홀

양성식 바이올린 독주회가 9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그는 13세에 프랑스 파리 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로 입학한 지 3년 만에 정규과정을 마쳤으며, 같은 해에 동 음악원의 석사과정에 수석 입학했다.

17세에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에서 3등을 비롯해 파리 롱-티보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프랑스 국립교향악단과 로얄 필하모닉을 비롯해 필하모니아, 런던 BBC 교향악단 등 세계 유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다. 파리 롱-티보 국제 콩쿠르, 벨그라드 국제콩쿠르, 파가니니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을 역임한 그는 현재 대구 가톨릭대학 교수로 후진양성에 힘쓰며, 에라토 앙상블의 음악감독도 맡고 있다.

공연 레퍼토리는 모차르트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18번 G장조’,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9번 A장조’,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3번 D단조’,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이다.

피아노 반주는 서현일씨가 맡는다. 광주예고 재학중 독일로 유학을 떠난 그는 드레스덴 국립음대 등에서 수학했으며 현재 전남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티켓 가격 3만원(학생 1만5000원). 문의 062-360-843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